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EU, 금융시스템감독 개혁방안 발표

- 유럽공동체는 유럽 금융시스템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히면서, 유럽금융시스템리스크위원회(ESRC: European Systemic Risk Council)와 국가별 감독에 우선하는 유럽금융감독기구(ESFS: 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)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함.
 - 금번 개혁안은 2009년 2월말에 발표된 EU 태스크포스의 보고서*를 바탕으로 계획되었으나, 개혁 일정 단축과 ESFS 설립 등은 EU 태스크포스의 제안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됨.
 - * 2009년 3월 3일자 「KiRi Weekly」 해외금융 뉴스의 유럽편 참조
- ESRC는 유로지역의 금융 안정화를 저해하는 리스크를 파악·경고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거시적 측면의 금융감독을 목적으로 함.
 - 유로중앙은행장이 ESRC의 위원장을 맡으며, 非유로지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위원장은 非유로지역에서 선출되고, 개최는 분기별로 이루어짐.
 - 27개 회원국의 중앙은행장과 금융감독기관 대표자가 ESRC에 참석하게 되나, 금융시스템리스크 파악에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무부장관은 배제하기로 함.
 - 각국에 대한 ESRC의 경고와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해당 국가에 대한 압력을 증가함으로써 각국은 ESRC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.
- ESFS는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적 측면의 금융감독을 목적으로 하며, 동 기구의 설립으로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 현재의 국가별 감독에 국한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것으로 보임.
 - 2011년 발족될 ESFS는 각국의 은행, 보험, 연기금 감독기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을 부여받을 예정이며, 유로지역내 신용평가기관과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정산소(clearing house)의 인허가와 감독권도 가질 예정임.
- 동 개혁안은 감독권의 이양에 따른 문제점(영국 제기)과 ESRC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부 국가의 반대가 제기될 것으로 보임.
 - 유로지역의 정상과 재무부장관들은 6월에 개최되는 회의에서 동 개혁안을 협의할 예정임. (유럽공동체 보도자료 5/27, The Irish Times 5/27)